

# 한미, 저작권 환수 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합의

한미는 지난31일 워싱턴D.C에 있는 펜 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 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는 전 작 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 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은 한국 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 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8개 항으로 이뤄진 연합방위지침은 전 작 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가 어떻게 작 동되는지에 대한 전략문서이다.

'연합방위지침'에는 우선 한미상호방 위조약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전작권 환 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 조를 유지하되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 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바뀌게 된다.

한미는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 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 정 1호'에도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 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 도 승인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 에 한미가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환수 준 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국은 한 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 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 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 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 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완 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 작 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되고 있다.

# “한국 기업환경 세계 5위-G20 중 1위”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5위로 평 가받았다.

지난 31일 '이데일리'가 한국 기 획재정부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 면 한국은 2018년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평가(Doing Business2019) 결과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로 평가됐 다. 주요 20개국(G20) 중 1위,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 를 기록했다.

앞서 한국은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2012년 8위, 2013년 7 위, 2014년 5위, 2015년 4위, 2016년 5위, 2017년 4위로 5년 연속 5위권 이 포함됐다.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덴마크, 4위는 홍콩이 차지했 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8위, 일본 은 39위, 중국은 46위로 평가됐다.

한국은 10개 평가 부문 중 전기 공 급, 법적 분쟁해결, 건축 인허가, 창 업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 기 공급 분야는 소요시간·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낮은 소송 비용과 효율적인 소 송 절차로 법적 분쟁해결 부문에서 2위를 받았다. 효율적 소송 절차에 선 온라인을 통한 소송 절차, 화해·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도입 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건축 인허가의 경우 28위에서 10 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건축품질안 전관리 지수에서 기술 검수를 위한 전문 자격요건(건축사) 사례가 긍정 적으로 반영됐다.

반면 한국은 기업 퇴출, 자금 조달, 통관행정, 재산권 등록 부문에선 상 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퇴 출 부문의 경우 도산 절차의 합리성 지표에서 점수가 하락해 5위에서 11 위로 밀려났다. 자금 조달 측면에선 60위를 기록했다. 다양한 담보 제도 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기 때 문이다.

재산권 등록 부문에선 40위를 기 록하는데 그쳤다. 등기(법원등기소), 인감·토지대장(행정안전부), 부동 산 실거래가 신고(국토교통부) 등 을 각각 관할하는 부처가 달라 절 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 문이다

세계은행은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에 대한 법령 분석과 지역 전문가의 리 서치 등을 통해 매년 기업환경을 평 가한다.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 민간 전문가를 지역 파트너로 선정 해 리서치를 실시한다. 시나리오를 적용해 부문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전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총 순위 를 산정한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 빅토리리 바디샵

##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